

교수회 주최 대구대학교 발전포럼 제1차 토론회

대주제: 안정적 재정운영 및 교직원 복지 향상 방안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반)

토론자: 안병억(국제관계학과)

1. 재정 건전성 확보의 대전제는

-적자가 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2016학년도 적자 150억 원을 초과, 2017년 학년도에도 100억원 초과 예상

왜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리더십은 적절한 시기에 최초의 적자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지출 삭감도 동의가 된다. 2017년 6월 전체 교수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

(더디고 매우 미미한 설명, 자료 외부 유출 우려를 소통보다 우선하는 지나친 '보신')

-중장기적 학교 발전 로드맵의 큰 틀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실천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특위 설치 운영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와 구성원들과의 소통, 동의가 필요하다

2.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교직원 복지 향상, 행정 조직의 개혁은 밀접하게 연계된 이슈다. 즉 개혁적인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 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확한 원인 규명과 설명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지출 우선순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출선수범도 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혹은 관료적인 일괄 지출 삭감의 문제)

3. 공간 비용의 절감과 기숙사 확충, 추가 비용없이 가능할 수 있는가?

1) 교내 대학촌(상가) 건설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2) 동편 캠퍼스 미개발 부지의 개발

-민자 유치 혹은 추가 비용 발생의 문제점